내 마음속 하나님의 무게

(사무엘상 4:12~22)

17.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18.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사십 년이었더라
19.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푸려 해산하고
20.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21.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22.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속 하나님의 무게>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내 마음속 하나님의 무게'
무애(无涯) 양주동 박사님의 일화 가운데 교수 시절에 선풍기로 채점을 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여기저기 불려 다니시면서 바빴고 인기가 많아서 강의시간에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채점이 항상 문제였는데,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선풍기를 가져다 놓고 동심원을 몇 개를 그립니다. 그리고는 선풍기를 틀어서 시험지를 확 뿌리면 선풍기 바람에 시험지들이 날아가다가 가까이 떨어지기도 하고 멀리 떨어지기도 하는데 가까이에 떨어지면 제일 좋은 점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안지에 많이 쓴 것이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았겠지만 이 분이 하도 기인 같은 분이시기에 그런 생각을 하셨나봅니다. 그렇다면 시험지가 아닌 사람의 무게를 동심원을 그려서 측정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사람의 체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갖는 무게는 얼마든지 동심원을 통해서 그룹 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고객으로 가진 미국 최대의 회계법인 KPMG의 최고 경영자가 유진 오켈리입니다. 이 사람은 가족들과 며칠간 휴가를 가는 것조차도 사치로 여길 만큼 바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18개월 후에 있을 일을 예측하여 계획을 세우고 앞만 보며 뛰어서 어마어마한 회사의 CEO도 될 수 있었는데, 53세가 되었을 때에 자꾸 안면이 이완되는 증세를 느끼게 됩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뇌종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으로 안면이완증세가 나타났고 앞으로 석 달 밖에 못산다.'라는 시한부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절망과 충격의 시간을 지나 암 진단을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사고로 죽거나 병약해서 죽을 때에는 온전한 정신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지만 이렇게 미리 죽음을 예측하게 된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100일 동안에 "인생이 내게 준 선물 (Chasing daylight)"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소중한 순서를 따라 동심원을 그려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제일 소중하고 직계 가족과 오랜 친구들과 다음으로 사업상의 절친한 동료들, 공통의 경험과 취미로 서로의 삶을 고양시키는 사람들로 정리합니다. 바깥쪽으로 시작해서 점점 안으로 들어오면서 작별 인사를 마음먹었습니다. 동심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에는 전화나 메일로 그 동안 행복했고 고마웠다는 인사를 나누고, 동심원 중심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직접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추억을 나누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만약 좀 더 일찍 내 앞에 영원한 삶이 펼쳐졌던 젊은 시절에 관계의 동심원을 그려볼 생각을 했더라면, 나는 중요한 사람들과 덜 중요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내 인생의 시간이나 에너지 배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좀 더 다르게 살 수 있었고 소중한 것과 덜 소중한 것을 가려서 시간과 에너지를 분배하며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마음속 무게로 따지자면 양주동 박사님의 선풍기 채점이 통할 수 있습니다. 다 귀중한 사람들이지만 누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지에 대한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무게의 차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소중함의 무게는 이렇게 마음속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동심원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적용해봅니다. 이분에게도 고향의 직계가족들이 있었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고 아내인 사라와 조카 롯도 있었는데 창세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동심원을 그려보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의 직계가족들을 마음에서 소중히 여기지 않고 버립니다. 아내인 사라도 두 번 씩이나 이방 왕에게 들여보냅니다. 백세에 낳은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진 오켈리처럼 동심원으로 소중한 것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 정상인데, 아브라함의 모든 이상한 행동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내 마음에서 무거운(重) 것이고, 비중이 크고 작은 것도 무겁고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이 무게를 갖게 되는 것은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내가 얼마나 마음을 집어넣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유진 오켈리에게 아내가 가장 소중했던 이유는 마음을 가장 많이 넣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얼마나 몰입시켰느냐에 의해서 무게는 결정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나 이삭이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존재할 수 있는 동심원의 그룹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다 마음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을 집어넣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 붓자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아내와 자녀와 재산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지켜 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못을 박은 라이프 스타일의 내용입니다.
선민에게는 동심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자 다른 존재들에게는 마음을 줄 수가 없어서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겁게 여기시고 지켜 가시고 보존해주시고 이끌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천 명이 죽고, 법궤를 가져온 후에 이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함성을 지르며 난리를 쳤는데 삼만 명이 죽게 되고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선민의 주체성을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으니 혼을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으로 짓는데, 이가봇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이 카보드'에서 나온 말인데 '무겁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22절의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웠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의 무게는 내 마음을 얼마나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어디에 썼기에 하나님이 깃털처럼 가벼운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바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에 대해서 몰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삭의 존재가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을 무겁게 느끼다보니, 이삭의 무게를 둘만큼 마음을 줄 수 없었습니다. 창22:12절에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신 것처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진 오켈리와 마찬가지로 내 자녀와 아내를 비롯해서 친구들과 사업과 거래처에 마음을 나눠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나눠줄 때에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에서 하나님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무게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가봇으로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의 증거였습니다. 법궤를 보면서 내 마음을 하늘의 하나님께 투자하고 몰입시켜서 하나님이 가장 무거우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블레셋에 넘어갔다'는 것은 법궤를 앞세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무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통로가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무게를 둔 소중한 것들을 성취하는 주술적 방법으로 바뀌어 버려서 법궤의 의미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셨는데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무게는 티끌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선민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자녀를 무겁게 여길 때에도 하나님을 무겁게 느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내나 사업이나 건강을 무겁게 느낄 때에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무겁게 느껴서 다른 것들을 깃털처럼 가볍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것들을 무겁게 느끼며 내 마음속에서 그것들이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들을 위해서 이용하겠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속 무게를 하나님으로 늘려가야만 하는데 이것이 영광입니다. 기반을 닦고 살던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떠났습니다. 사라와 함께 떠났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이미 사라를 포기했습니다. 떠나면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해서 다른 존재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강림하실 때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오며 산이 진동하고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불이 났는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임재 하셔야 했을까요? '우르르 꽝꽝 짜작'하고 벼락이 칠 때에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이 집중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계시하시고 임재하실 때에는 다른 것에는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벼락이 치고 산에 연기가 나고 불이 나는데 다른 곳에 관심을 둘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날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온 신경을 집중해서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전부 이 만남으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풍랑보다 더 무거운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무거우시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몰입하면 풍랑이 가볍게 여겨집니다. 풍랑이 산들바람처럼 여겨지니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

지 못하고 풍랑에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들이 내게 호의적일 때는 좋겠지만, 그것이 나의 방해세력이 되자 두렵고 떨려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무게를 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게가 마음속에서 무한히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는 다른 어떤 것들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치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만의 무게가 느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서 무게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과 결탁하는 상황을 어제 수류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놔두면 터져서 내가 죽고 삶의 평강이 깨어져나갑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게를 차지하려고 하고 흡수하려고 하는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었고 아내였고 땅이었습니다. 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서 깃털처럼 가볍게 밀어내고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활화함으로서 내 마음에서 다른 것들의 무게를 키우지 마세요.

쌍꺼풀 수술이 잘못되어서 일곱 여덟 번을 반복하다가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꾸 마음을 넣다보니 무거워져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쌍꺼풀이 가장 무거운 일로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내 독자나 목숨까지라도 깃털처럼 느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무겁게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생각이 10g짜리였던 것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1kg가 되고 10kg가 되고 20kg가 되며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1kg 미만일 때 십자가에서 다 죽고 내보내며 마음에는 하나님의 무게만이 커져서 나중에는 내 평생의 사업까지도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충만 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도 하루 종일 잘 사는 것은 영광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생활화하여 내 마음속의 하나님의 무게가 날로 증가하는 선민의 삶이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그동안 소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깃털 같이 가볍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무게만 늘려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